

가훈가



[해제]

<가훈가(家訓歌)>는 임인(壬寅)년에 지어진 작품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으로 한 집안의 전통적 도덕관으로 삼는다고 하는 가훈가사작품이다. 이 작품은 모두 7쪽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줄글 종서(縱書)의 형태이다. 한 쪽에 위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줄글로 되어 있다. 앞 쪽은 정연하게 10줄씩 순국문으로 필사되었으나, 두 번째 쪽부터는 12줄씩 필사되어 있다. 4음보 1행으로 전체 113행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격은 대체로 3·4와 4·4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창작시기는 “임인정월 초오일 소위가부 중화증기 객창축후잠작”이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임인(壬寅)년인 1842년이나 1902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으로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이룬다고한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인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길을 닦아 행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첩첩이 서린 말은 굵이굵이 다 못하니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백병, 즉 온갖 병이 물러간다고 피력하고 있다.

[원문]

가훈가

잠시 떠난후로 익운이 뒤을따라
 허다허다 이셔신이 막비운슈 뒤젯로다
 한고조 빅등찰이 살일괴신 씨가잇고
 흐물며 나갓튼이 요마스 가여식라
 몸은물에 평호갓치 쓰전물에 기름갓치
 못본지 스십여일에 첩첩심회 다못할다
 부모요 서로싱각 처자요 서로싱각
 소무회도 십구연도 상임흥안 씨가잇고
 약관평일 니작정이 남모르게 일심황스
 참고도 보인일과 피히도 당훈일은
 스람요 경육은 고금을 싱각훈이
 천지간 잇처라 보든할일 드러보소
 공부자 양호익과 조잉덕 적벽피며
 삼금으로 횡세하고 덕의로 기동삼아
 인의예지 방픽삼고 삼강오륜 길을싸가
 호의정계 안이됨면 범의종공 횡시년이
 열셋붓툼 히운일이 관익이 파다허다
 심연인공 모르고셔 일조에 화을깃쳐
 시속은 기우허고 원임은 탐치허여
 열변썰은 쌀이요 빅연싸른 돌이라
 원형이정은 일월노 징광허고 사싱영육은
 신명에 판단허니 바른말 삼를설은

방익슈령 두렵조고 지우금일 회온일은
 퍽전여를 독무로다 전조에 참은일을
 험스덤소 길스취키 히흔스람 흥히로
 흘너지고 득송민은 장방으로 갓친이
 옥석은 양공이 갈라니고 송척은
 세월 분간하니 허던 든말은
 물갓치 흘너지고 사불여의 세공하면
 명니지천 작정이라 난지직 스람이요
 부지정지 일가로다 금실간도 덤퍼던이
 금연화씩 당두하니 물은 건늬보고
 사람은 격거본이 오도형장은 일심에
 굴치온코 삼촌혈단은 심목에 발악후이
 진퇴업시 남은악은 히할마음 분이노다
 원임은 고름이라 터진걸 못움우고
 날슈느러 욱을보즈 이흥계 쏘이로다
 원임의 으침조은 박중화 욱을보고
 조식이 부모웠코 신조가 임금웠지
 전자에 은밀가셔 뒤한다시 써여보니
 근근회류 말여녹고 조연세월 허비후이
 님원뒤을 네가텔나 의심에 갓친악을
 초야흔스 이스람이 만호휴로 시비된이
 님계에 친흔스람 원으일이 야단일다
 동싱이 형위흥과 처솔이 남편웠지
 금실나을 칭각후여 한스성병 발원말이
 친고으 문옥인스 허다이기 이중에
 이달이라 초스일에 영문얼거 보고하니
 관민의 등갈이요 만인의 공론이라
 이몸흔나 궁도된이 님뒤볼이 그뉘넉고
 친고가 친고웠지 오윤중취 말이라
 정지의리 당연흔나 초마형세 못할세라
 오륜중 말지로서 그뉘을 미들손야
 임인정월 초삼에 쏘박게 뒤구친고
 친고으지 휘년가 만단논제 방송제사
 원정의송 속히지여 동싱불넉 고부후여
 광풍누의 복을치고 빅달직입 못할세라
 심상의 바리존이 한천의 빗발이라
 할일이 만컨만은 님몸을 비후건던
 의승원정 제음니야 웃체전히 체중완니

도부를 직시하이 원임이 물청하니
보고짜라 더구갈식 승부를 뉘알손야
우연디기 발니준이 승세강약 호의노다
닉몸이 갖기되면 들고나고 허다쳐에
농에든 식미오 궁계든 빈미라
반가이 써여본이 감수의 명감인가
놀이눅코 방보하이 우모른난 이원이라
형제정분 좇컨만는 무식하고 추림선이
민난바 하날잇체 쾌제가 날리년가
친고의 좌의주션 더하낫티 절노나고
만일회제 좇키오면 불행중 다행이라
만일읍상 더구가면 장부의 큰일이라
집에쳐주 드러보소 스람일심 신운이가
눈에도 삼삼하고 쏜에도 빈빈하니
병획을 절용하고 체중키 조흔모랑
남보기 정중하소 언제만슈 장성하야
인니뒤을 이어붙고 도금형편 돌너본이
이곳셔 도라셔면 일상어이 티평하리
소위추림 장부지가 여초에 소소정은
다뭇하고 짐작하소 으히들 분요말고
조심조심 만할셔라 인난양식 밥히먹고
절용박게 할게업고 옛스람으 히온일도
십연을 칼을갈아 스람이 적글세라
가고은가 관염업니 일시영 척여스라
셔로인난 싱각이야 외주업난 치슨들이
조심요량 만할셔라 밤드려 중을잘제
온집을 정히하고 걸문을 구지걸고
나날이 취권할일 만슈글이 웃듬이라
썰긋절 영위하고 담육디이 삼육소를
의리로 기동삼고 언셔로 조화바다
족식의 고양이며 처을정지 다시싱각
싱각난이 부모쳐주 이속견디 알작시라
으마도 인니작정 일군티슈 불운휴에
옛말드려 격겨보고 운슈로 짐작하이
마음으로 기동삼고 인정으로 근본삼아
활달성취 장성하면 창히역스 일퇴성은
셔이하나 민는쓰절 닌들싱각 엇셔할이
이달이라 초심전에 캐방이 안이됨면

니듯되로 증설하고 죽장망해 초질세라
식스람 삼연전과 식집드려 삼연전은
의른으로 살임하고 마암맛좌 도와주소
만승천조 두렵존코 온세상 훈일너신이
천금지지 불사시라 소마힘은 잇건마은
딕구가셔 괴필이야 초초성식 일연이와
니낫니말 싱각거든 이글두고 조조보소
흐물며 일편심이 격근휴면 쾌흘서라
첩첩이 셔린말은 굽비굽비 다뭇하고
객창흔등 부설조바 어딕간 기록히
날노걱정 하지말고 우선딕강 짐작흐소
알이가 뉘기년고 정든스람 알작시라
마암편키 싱각흐면 빅병이 물너간이
임인정월 초오일 소위가부 중화증기
객창축흐잠작

상사금실가

희점문이 싱각이어더하고 자다쨌이 싱각더한이
더하고더하고 더흔싱각 쓰절뵈쳐 지여보시
망경창파 집[∞]을은 그항정을 뉘가알며
만첩첩산 집[∞]곳절 그항정을 뉘가알며
단단명월 발근다시 만천에 가득하고
정정녹슈 빗계션이 춘만건곤 가자잇고
삼삼화용 완연히 목흐에 버려셔라
섬섬옥슈 만진다시 몸우에 버려잇고
운운흔 고은티도 심상에 버려잇고

[현대역]

가훈가

잠시 떠난 후로 액운이 뒤를 따라
허다허다 이 서신이 막비운수 뒤젯로다
한고조 백등칠이 살일기신 때가있고
하물며 나같은 이 요마스 가여식라
몸은 물에 평호같이 쓰전물에 기름같이
못 본지 사십여 일에 첩첩심회 다 못하다
부모를 서로 생각 처자를 서로생각
소우회도 십구년도 상임흥안 때가있고
약관평일 내 작정이 남모르게 일심황사
참고도 보인일과 피해도 당한일은
사람을 녍욕은 고금을 생각하니
천지간 잊어라 보든 할일 들어보소
공부자 양호액과 조맹덕 적벽패며
삼금으로 행세하고 대의로 기동삼아
인의예지 방패삼고 삼강오륜 길을 닦아
호의정계 아니되면 법의종공 행세더니
열 셋부터 해온 일이 관액이 파다하다
심연인공 모르고서 일조에 화를 끼쳐
시속은 기우하고 원임은 탐재하여
열 번 씻은 쌀이요 백년 따른 돌이라
원형이정1은 일월로 장광하고 사생영육은
신명에 판단하니 바른말 삼을 설은
방액수령 두렵지 않고 지우금일 해온 일은
백전여를 독무로다 전자에 참은 일을
형사덤꼬 길사추키 히한사람 흥히로
흘러지고 득송민은 장방으로 갈히니
옥석2은 양공이 갈라내고 송백은
세월 분간하니 하던 든 말은
물같이 흘러재고 사불여의 세궁하면
명내제천 작정이라 난지재 사람이요
부지정재 일가로다 금실간도 덤뻐더니
금연화씩 당도하니 물은 건내보고
사람은 겪어보니 오도형장은 일심에
굴지 않고 삼촌 혈단은 심목에 발악하니

진퇴없이 남은 악은 해할 마음 분이노다
 원임은 고름이라 터진 걸 못 암우고
 날수 늘어 욕을뵈자 이흥계 뿐이로다
 원임의 아침자는 박중화 욕을 보고
 자식이 부모위고 신자가 임금위지
 전자에 은밀가서 대한다시 떠여보니
 근근회류 말려놓고 자연세월 허비하니
 내원 뒤를 내가될라 의심에 끼친 악을
 초야한사 이 사람이 만호후로 시비되니
 내계에 친한 사람 원의 일이 야단이다
 동생이 형위함과 처술이 남편위지
 금실 나를 생각하여 한사성병 발원 말이
 친고으 문옥인사 허다이기 이중에
 이달이라 초사일에 영문 엮어 보고하니
 관민의 등갈이요 만인의 공론이라
 이 몸 하나 궁도되니 내 뒤 불이 그뉘넉고
 친고가 친고위지 오윤중치 말이라
 정지의리 당연하나 차마 행세 못할세라
 오륜3중 말재로서 그뉘를 믿을소나
 임인정월 초삼에 뜻밖에 대구 친고
 친고으지 휘년가 만단논제 방송제사
 원정의송 속히 지어 동생불러 고부하여
 광풍누의 복을 치고 배달직입 못할세라
 심상의 바래자니 한천의 빗발이라
 할일이 많건마는 내몸을 비하건데
 의승원정 제음내야 옷체전해 체중왔네
 도부를 직시하니 원임이 물청하네
 보고따라 대구갈세 승부를 뉘알소나
 우연대기 발내자니 승세강약 호의로다
 내몸이 갈기되면 들고나고 허다처에
 농에든 샘이오 궁에든 뱀이라
 반가이 떠여보니 감사으 명감인가
 늘어 놓고 방보하니 우모른 난 이원이라
 형제정분 좋건마는 무식하고 추림선이
 믿는바 하늘이지 쾌제가 날리년가
 친고의 좌의주선 대한낫티 절로나고
 만일회제 좋게오면 불행중 다행이라
 만일압상 대구가면 장부으 큰일이라

집에처자 들어보소 사람일생 신운이가
눈에도 삼삼하고 꿈에도 빈빈하니
범백을 절용하고 체중키 좋은 모양
남보기 정중하소 언제만수 장성하여
인내뒤를 이어볼고 도금행편 둘러보니
이곳서 도라서면 일상어이 태평하리
소위추림 장부재가 여차에 소소정은
다 못하고 짐작하소 아이들 분뇨 말고
조심조심 만 할서라 있는 양식 밥해먹고
절용밖에 할게없고 옛사람으 해온 일도
십년을 칼을 갈아 사람이 적을세라
가고안가 관염없네 일시영 책여사라
서로있는 생각이야 외주없는 치산들이
조심요량 많을세라 밤들어 잠을 잘제
온집을 정히하고 걸문을 꺾이 걸고
나날이 취권할일 만수 글이 으뜸이라
썰긋절 영위하고 담옥대이 삼옥소를
의리로 기동삼고 언서로 조화받아
자식이 고양이며 처를 정지 다시생각
생각나니 부모처자 이속견대 알작시라
아마도 인내작정 일군태수 불운후에
옛말드려 꺾어보고 운수로 짐작하니
마음으로 기동삼고 인정으로 근본삼아
활달성취 장성하면 창해역사 일퇴성은
셋이 하나 믿는 뜻을 낸들생각 어떠하리
이달이라 초 십 전에 캐방이 아니되면
내 뜻대로 증설하고 죽장망혜4 찾을세라
새 사람 삼연전과 새집들여 삼연전은
어른으로 살림하고 마음맞워 도와주소
만승천자 두렵지 않고 온세상 한일너신이
천금지재 불사시라 소마 힘은 있건마는
대구가서 기별이야 차차성식 일연이와
내낫내말 생각거든 이글 두고 찾아보소
하물며 일편생이 겪은 후면 쾌활서라
첩첩이 서린 말은 구비구비 다 못하고
객창한등 붓을 잡아 어디다 기록하니
날로 걱정 하지 말고 우선대강 짐작하소
알리가 뉘기런고 정든 사람 알작시라

마음 편하기 생각하면 백병이 물러가니
임인정월 초오일 소위가부 중화잠기
객창축하 잠작

상사금실가

해 저무니 생각이 어떠한고 자다 깨니 생각 더하니
더하고 더하고 더한 생각 뜻을 부쳐 지어보세
망경창파(萬頃蒼波)1 집窓을 그 한정(閑靜)을 누가 알며
만첩(萬疊) 첩산(疊山) 집窓곳을 그 한정(閑靜)을 누가 알며
단단명월(團團明月) 밝은 듯이 만천(滿天)2에 가득하고
정정녹수(亭亭3綠樹) 비껴서니 춘만(春滿)4이 건곤(乾坤)에 가득하고
삼삼5 화용(花容) 완연(宛然)하니6 목하(目下)에 벌였어라
섬섬옥수(纖纖玉手)7 만진 듯이 몸 위에 벌여있고
온온(溫溫)한8 고운 태(態)도 심상(心想)에 벌여있고

[각주]

- 1) 원형이정(元亨利貞) : 하늘이 갖추고 있는 네 가지 덕.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서 자라고 이루어지고 거두어짐을 뜻함. 즉, 춘(春)하(夏)추(秋)동(冬)을 이룸.
- 2) 옥석(玉石) :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함을 이르는 말.
- 3) 오륜(五倫) :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이룸.
- 4) 죽장망혜(竹杖芒鞋) : 대지팡이와 짚신이란 뜻으로, 먼 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를 이르는 말.
 - 1) 망경창파(萬頃蒼波) :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 2) 만천(滿天) : 온 하늘.
 - 3) 정정(亭亭) : 나무 따위가 높이 솟아 우뚝한 모양.
 - 4) 춘만(春滿) : 봄 기운이 가득함.
 - 5) 삼삼 :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 6) 완연(宛然)하니 :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니.
 - 7) 섬섬옥수(纖纖玉手) :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르는 말.
 - 8) 온온(溫溫)한 :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 듯한 훈훈한 기운이 있는. 훗훗한.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